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3호 【루게 제24756호】 주제103(2014)년 12월 9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서홍찬동지, 박영식동지, 량철성동지, 조경철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를 직접 발기하시고 역사적인 서한 《군인가족들은 총잡은 남편들의 믿음직한 부사수가 되자》를 보내주시였으며 오늘은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꿈결에도 믿고싶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강령적인 서한에서 군인가족들이 지난 기간 최고사령관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당에 무한히 충실한 군인가족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자신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총린 군인들과 함께 우리 군인가족들이 있다는 최상의 평가를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사회주의수호전에 한몸바칠 각오를 안고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군력강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군인가족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성대히 열린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군인가족사업중 시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군인가족사업을 개선강화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속에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군인가족들은 나라의 만여

느리로, 군력강화의 일익을 담당한 여성혁명가들의 대부대로 억세계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찬 력사에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며 청춘시절의 꿈과 리상, 가정의 행복도 군력강화에 목숨까지 바쳐온 군인가족들의 숨은 공로가 뜨겁게 어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가족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울것을 결심하고 계급투쟁의 전초선에 선 총대혁명가들이고 최고사령관의 가장 가까운 전우들이 남편들과 마음도 발걸음도 하나로 맞추어나가며 최고사령관을 대신하여 병사들의 생활을 진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봐주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가족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총잡은 남편들이 집걱정을 하지 않고 혁명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그들의 뒤바라지를 잘하며 언제나 화선에 선 병사의 자세와 립장에서 살며 투쟁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조국의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군인가족들은 총잡은 남편들의 믿음직한 부사수가 되자!》라는 구호를 뼈속깊이 쏘아 박고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만들어나가는 길에서 빛나는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군인가족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대대같은 은덕에 기어이 보답할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군인 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2기 제5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를 마련해주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며 공연도 함께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손저어주시였다.

황병서 동지, 서홍찬 동지, 량철성 동지가 공연을 보았다.

공연에는 조선인민군 제564군부대, 제966군부대, 제233군부대, 제593군부대, 제287군부대, 제630군부대, 제380군부대, 제243군부대, 제468군부대, 제600군부대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하였다.

합창편곡 《영원한 미소》, 《사랑의 미소》,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사랑송이야기 《백두산일가분들과 사회주의》, 실화극 《아버지》, 독창과 합창 《우리 원수님》, 막간극 《되돌아선 병사의 어머니》, 기악과 노래 《웃음꽃이 만발했네》, 시이야기 《원한의 추천다리》, 실화와 노래 《원수님의 축복》, 독연 《중대군관의 안해》, 북과 기악 《우리



투쟁과 생활을 실감있게 보여주었으며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고무추동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연이 끝난 다음 무대에 오르시여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늘 사진촬영장에서 보고싶고 사랑하는 나의 전우들의 안해들이며 어머니들인 동지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우리 당을 굳게 믿고 따르는 동지들의 깨끗한 마음에 감사하고 또한 동지들이 지닌 남다른 혁명열의, 혁명적락관주의를 보고 대하면서 받은 충격이 너무 크고 꼭 인사말을 전하고싶어 나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렁듯 강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미더운 저 동지들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전우들의 안해들, 위대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우리 후대들의 다심한 어머니, 총잡은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우리 혁명을 사수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부사수들, 우리 혁명의 영원한 작식대원들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3 번 으 로 계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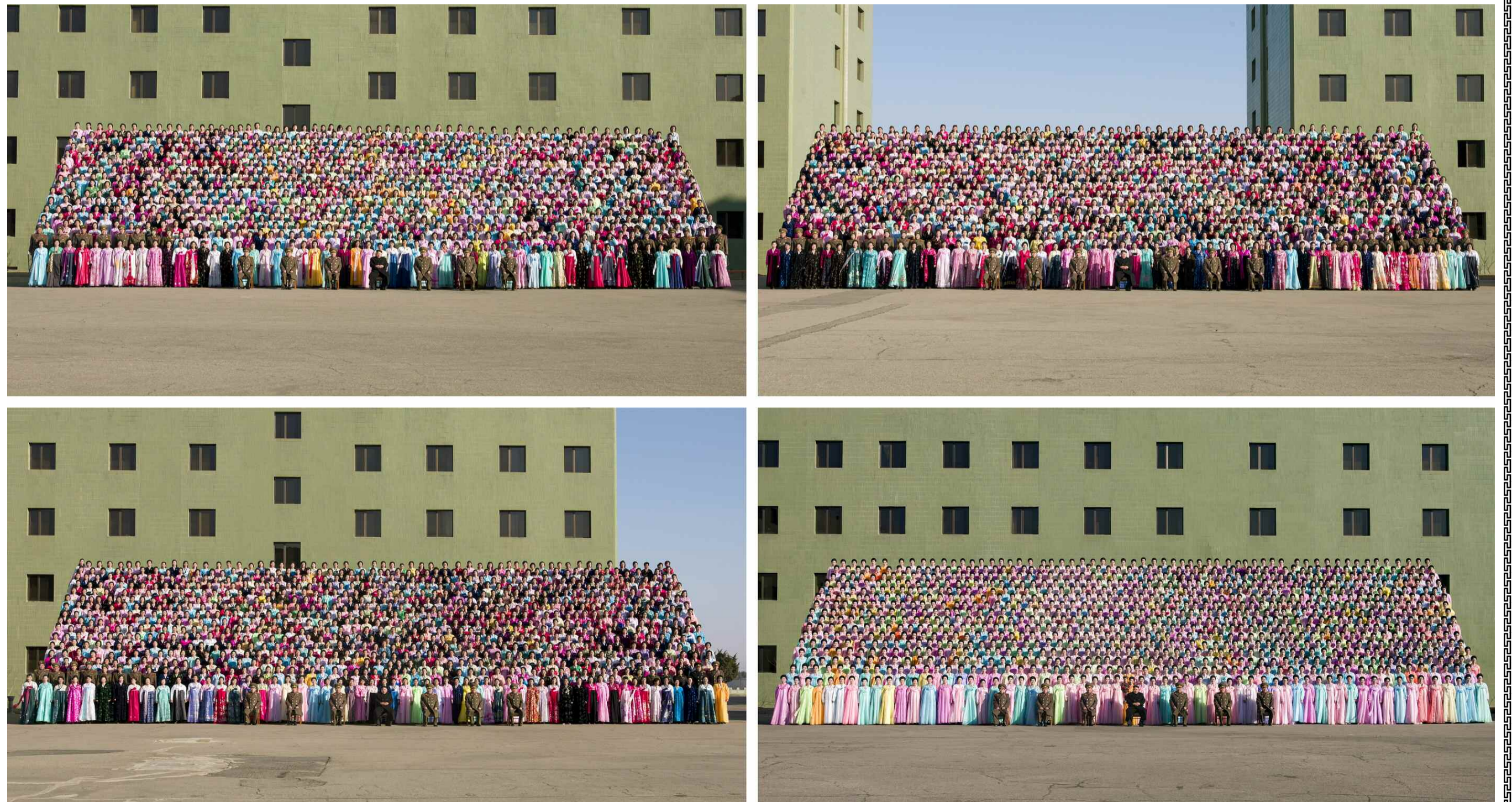
앞날 밝다》, 실화 《우리 마음도 결사옹위의 향로를 날은다》, 합창 《불타는 소원》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열렬한 흠모심을 소중히 간직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어가시는 선군혁명명도의 자욱자욱에 자기들의 마음을 따라세우는 군인가족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우리 군인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하늘같은 은덕이 시와 노래로 울려 퍼지고 온 나라가 다 아는 장제도의 정향명어린이 무대에 나와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올리자 관람자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도를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오직 한마음 최고사령관동지만 믿고 따르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투적으로 생활하는 군인가족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총잡은 남편들을 도와 병사들의 어머니가 되어 헌신을 바쳐가는 군인가족들의

고나갈 우리 후대들의 다심한 어머니, 총잡은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우리 혁명을 사수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부사수들, 우리 혁명의 영원한 작식대원들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군인 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2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무장력은 결코 강위력한 현대적인 타격수단들을 갖추었고 강대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부사수들이 남편사수들결에서 뒤바라지를 하고있기에 인민군대가 그 어떤 동란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당과 혁명을 억척같이 보위해가는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고있다는것을 새삼 새겨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지들의 눈빛에서 말없는 기대의 목소리를 들으며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동지들의 사랑하는 남편들과 자식들이 틀어잡고있는 총대인 우리의 혁명무장력을 최고사령관으로서 영원한 승리의 길로 더 잘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지들과 같은 강인하고 위대한 녀성혁명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누가 보건말건 말없이 남편들의 뒤바라지를 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동지들이 흘리고있는 순결한 향신의 땀방울들은 혁명의 피방울인양 우리 혁명의 맥동을 더해주며 더 운택한 앞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게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심없이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지지해주는 동지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지

들과 같은 사랑하는 안해들, 다심한 어머니들의 눈빛에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적에 대한 증오를 키우며 사는 동지들의 남편들, 동지들의 자식들은 소중한 그 눈빛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 더 용감하게 싸울것이며 영원히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날려갈것이라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사랑하는 남편들과 자식들이 혁명에 더없이 충실하고 조국번영을 위한 생애길을 맨 앞장에서 더 용감히 헤쳐나갈수 있도록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군인가족들이 우리 혁명의 작심대원으로서의 본분을 더 잘해주어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지들이 이번 대회에서 제시된 우리 당의 사상을 깊이 새겨안고 내려가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인가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나의 전우들이자 동지들의 남편들, 자식들인 우리 인민군대의 생활을 우리 당의 땅, 우리 당의 머느리들인 동지들에게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고 언제나 남편들과 자식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전체 인민군군인가족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솟구치

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로 두부를 적시면서 폭풍같은 《만세!》를 터쳐올리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군인가족들의 천어비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리러 목매어 부르는 열광의 환호로 하여 장내는 용암마냥 끓어 번지였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은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공연을 함께 보여주시고 전체 군인가족들을 따뜻하고 무격려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총잡은 남편들의 부사수라는 값높은 영예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조국보위와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시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자

오늘의 현실은 어떤 인간을 요구하는가

함경북도 당 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날로 악랄해지는 날강도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오늘 당조직들이 보다 힘을 넣어야 할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신명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혁명적신념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자기 령도자를 굳게 믿고 따르는 마음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연 제대로 삼고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것은 지난 3년간의 력사가 확증해준 진리이다.

현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추후세대가 길이 빛내어나가는 무한한 신념의 소유자, 고결한 도덕의리 체현자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함경북도당위원회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

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자면 무엇보다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이것을 깊이 자각한 도당위원회 일꾼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이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단위, 자기 군, 자기 도에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내용을 확히 깨들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은 것이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도에 새기신 령도사적내용을 보충하여 위대성교양자료를 보다 풍부히 하는 한편 《북변방에 새겨진 선군명장의 위인적 품모》를 비롯한 수많은 위대성교양자료를 마련하여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 배부하였다.

자기 단위에 있는 절세위인들의 령도사적을 잘 알게 하는 데서 연혁소개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단위에 있는 올해 북도미술창작에서 새로 조직된 학술실을 중시하였다. 학술실의 력량을 풀어들어 꾸러주고 도당위원들이 학술실성원들과 함께 아

배단위들에 내려가 자료확보도 하면서 연혁소개관의 도안을 잘 만들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그 길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데 필요한 현대적인 인쇄설비들도 갖추어주었다.

도당위원회의 위대성교양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모든 것이 사업을 직접 담당한 일꾼들만이 아니라 모든 일꾼들이 떨쳐나서는 위인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일관성있게 밀고나간것이다.

도적인 강연강사들의 경연이 자주 조직되고 령도적단위들을 선동사업의 본보기단위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었다. 출판물보급원들은 도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파견하여 도서 《위대한 생애의 2011년》을 비롯한 16건의 위대성교양도서에 대한 선전사업을 벌이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작전과 지도에 따라 의의 있게 조직된 회고모임 《장군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도에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과 인민적정신을 더 잘 알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한두번의 작전도 그친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계획에 따라 끊임없이 실시된 도당위원회의 진공적인 사상공세는 온을 냈다. 어버이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는 과정에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장그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 충정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였다. 그들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을 가슴에 새기며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길에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게 된것은 도당위원회의 참신한 사상교양사업의 결실이다.

신념은 실천투쟁을 통해 발전되며 그 과정에 더욱 굳건해진다. 도당일꾼들은 언제나 도당위원회구내에 모셔진 친필비문에 파견하여 도서 《위대한 생애의 2011년》을 비롯한 16건의 위대성교양도서에 대한 선전사업을 벌이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작전과 지도에 따라 의의 있게 조직된 회고모임 《장군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도에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과 인민적정신을 더 잘 알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한두번의 작전도 그친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계획에 따라 끊임없이 실시된 도당위원회의 진공적인 사상공세는 온을 냈다. 어버이장군님의 위대성과

도당위원회에서는 령도적단위들을 본보기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은 물론 모든 부서들이 령도적단위들을 맡아 힘있게 밀어내 결과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청진전기총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행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장군님께서 교시하신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되며 강성국가의 새 아침도 반드시 밝아오게 된다는 확신을 굳게 가지게 되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으로 가슴 벅때우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 그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선군혁명투사들로, 혁명적신념의 강자들로 더욱 역세게 키우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이 함경북도당위원회처럼 격조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한 충신,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방편있게 전개해나갈 때 최후승리의 날이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승연

우리 장군님처럼!

◇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더욱 뜨겁게 끓어오르는 12월이다.

금수산태양궁전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며 누구나 조용히 되뇌인다.

《나는 과연 우리 장군님처럼 살아왔는가.》

당일꾼들과 행정경제일꾼들, 근로단체일꾼들도, 탄부들과 전력생산자들도, 농업근로자들과 의료공로들, 과학자들과 교육자들도, 청년강연의 봉사들과 세세구구의 개척자들도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물음앞에 선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장그러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원신의 한평생을 다시금 되새기며 지나는 3년세월을 돌이켜보는 우리 근대와 인민의 가슴은 용암마냥 끓어번진다.

우리 장군님처럼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장군님처럼 조국을 위해 헌신하자!

이것이 이 나라 근대와 인민이 12월에 다지는 신념의 맹세이다.

◇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한생은 우리 인민모두의 삶과 투쟁의 거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한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여기에 어떤 자료가 있다.

지구둘레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 610여 리 현지지도의 길, 찾으신 단위는 무려 1만 4 290여개.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심장을 불태우시며 우리 장군님 한평생 헤치신 영웅사적적인 행로이다.

하기에 이 나라의 한 시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길을 그대로 이어놓으면 선군조선

의 지도가 된다고 걱정을 터친것이 아닌가.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시였다.

나는 그 누구나 장군님의 인생관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장군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같은 인생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장군님의 한생은 말 그대로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는 없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은 우리 근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삶과 투쟁의 가장 숭고한 거울로 소중히 간직되어 영원히 빛나고있는것이다.

◇ 우리 장군님처럼 살자!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근대와 인민의 영원한 인생관으로 되어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천과 결부하여 참신하게 진행함으로써 온 나라에 애국의 열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을 장군님선대로 해나감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야 한다.

일꾼들은 이인위권을 파우명으로 삼고 인민사랑의 한평생을 빛내이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적품모를 따라배워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총부여 되여야 한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하루를 살아가고, 한생을 바쳐도 어버이장군님을 닮고 장군님처럼 살며 투쟁해나가는것을 랑심과 도덕으로 간직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사랑하고 심혈을 기울여주신 우리 조국방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12월, 조용히 불려만 보아도 이 가슴을 두드리며 울려오는 메아리가 있다.

기적소리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평생 타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12월의 기적소리여서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사무쳐지는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숭고한 헌신과 애국적 열정을 다하셨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어버이를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끝없이 새겨주고있는것이다.》

바로 그 애국원신의 기적소리에서 조국의 존엄이 빛났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었다.

그날의 기적소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울리고있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해주며, 불같은 열정의 박동을 더해주며 천만의 심장속에서 끝없이 울리고 있다.

그렇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불같은 헌신을 전하는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의 선물로 엮여진 절절한 그리움의 노래로, 최후승리로 힘차게 떨쳐주는 진정의 나팔소리로 영원히 울려 퍼져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숭고한 도덕의리심, 불같은 실천

구성방직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불같은 실천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구성방직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통해서도 다시금 느끼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올해 3월 공장초급당집행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장군님의 령도업적이지만 단위에게 공상충화하였던 공중정모법을 널리 일반화하는 사업도 잘 따라세웠다.

그 과정에 공상의 면모를 짧은 기간에 일신시키는 자랑찬 성과가 이루어졌다.

공상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행을 선군시대 공로자들과 여러 대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닌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앞장서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일꾼들은 이들의 사업정형을 알아보면서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

은 곧 실천으로 빛나야 한다는 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대외의 기수가 되어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총폭발되는 날에 지난 7월 정방 1직장 정방공 원은정동무가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제정된 저 넘쳐 수확한대 이어 직로2직장 직로공 주명희, 준비 1직장 권사공 로은희, 직로 1직장 직로공 백현숙, 준비 2직장 직로공 리승임동무들이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리노직장에서는 혁명선동무를 비롯한 7명의 동무들이 2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대렬에 들어서는 자랑찬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10월말까지 60여명의 종업원들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었다.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실천으로 발휘해가는 이들의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여 온 공장에 생산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불같은 실천으로 발휘해나가는 사업도 잘 따라세웠다.

본사기자 리종석

은 곧 실천으로 빛나야 한다는 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대외의 기수가 되어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총폭발되는 날에 지난 7월 정방 1직장 정방공 원은정동무가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제정된 저 넘쳐 수확한대 이어 직로2직장 직로공 주명희, 준비 1직장 권사공 로은희, 직로 1직장 직로공 백현숙, 준비 2직장 직로공 리승임동무들이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리노직장에서는 혁명선동무를 비롯한 7명의 동무들이 2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대렬에 들어서는 자랑찬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10월말까지 60여명의 종업원들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었다.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실천으로 발휘해가는 이들의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여 온 공장에 생산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불같은 실천으로 발휘해나가는 사업도 잘 따라세웠다.

본사기자 리종석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업적을 황해북도에도 뜨겁게 아로새겨졌다.

자기 교양의 사적내용을 가지고

일꾼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위대성교양사업을 잘하여 그 성과를 높여나가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도록 하고있다.

근로일꾼들은 혁명적인 도서를 통한 교양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자기 단위에 있는 사적내용을 잘 해설해주면서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을 실시하였던 버려 나가고있다.

근로일꾼들은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도서선전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한편 위대성교양사업을 잘하여 그 성과를 높여나가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도록 하고있다.

근로일꾼들은 혁명적인 도서를 통한 교양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자기 단위에 있는 사적내용을 잘 해설해주면서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을 실시하였던 버려 나가고있다.

근로일꾼들은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도서선전을 여러가지 형식과

12월, 조용히 불려만 보아도 이 가슴을 두드리며 울려오는 메아리가 있다.

기적소리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평생 타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12월의 기적소리여서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사무쳐지는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숭고한 헌신과 애국적 열정을 다하셨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어버이를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끝없이 새겨주고있는것이다.》

바로 그 애국원신의 기적소리에서 조국의 존엄이 빛났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었다.

그날의 기적소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울리고있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해주며, 불같은 열정의 박동을 더해주며 천만의 심장속에서 끝없이 울리고 있다.

그렇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불같은 헌신을 전하는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의 선물로 엮여진 절절한 그리움의 노래로, 최후승리로 힘차게 떨쳐주는 진정의 나팔소리로 영원히 울려 퍼져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업적을 황해북도에도 뜨겁게 아로새겨졌다.

자기 단위에 있는 사적내용을 잘 해설해주면서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을 실시하였던 버려 나가고있다.

근로일꾼들은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도서선전을 여러가지 형식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우루과이 동방공화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본때비데오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대통령 당선자 따바레 라몬 바스게스각하

나는 최근 귀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신이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 또다시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대통령의 중책을 지니게 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평화와 친선을 지향하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에 부합되게 가까운 것남에 조신과 우루과이사이에서 친선의 늬어가 맺어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할 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12월 1일 평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과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혁명적문화애를 이룩하는 것은 혁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혁명적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예술영화촬영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영화예술에서부터 열어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안주시고 영화촬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셨다.

그 직접적담당자인 영화예술인대오를 총칭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영화로 옮기는 숭고한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혁명적 영화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 해주셨다.

영화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자주시각 영화예술이 나아갈 길을 확히 밝혀주시는 불멸의 거시며 주체의 문학리론으로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대명》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간으로서의 문학애의 본성과 사명, 독창적인 총자본을 천명하시고 창작원리와 원칙들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를 발표하신 50돐 기념보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과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혁명적문화애를 이룩하는 것은 혁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혁명적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예술영화촬영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영화예술에서부터 열어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안주시고 영화촬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셨다.

그 직접적담당자인 영화예술인대오를 총칭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영화로 옮기는 숭고한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혁명적 영화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 해주셨다.

영화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자주시각 영화예술이 나아갈 길을 확히 밝혀주시는 불멸의 거시며 주체의 문학리론으로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대명》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간으로서의 문학애의 본성과 사명, 독창적인 총자본을 천명하시고 창작원리와 원칙들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불》, 《만평초》, 《초행길》, 《별》을 비롯한 많은 예술영화들이 창작되어 수령상장조위인이 빛나게 실현되고 우리 근대와 인민들의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50년의 영화예술이 걸어온 지난 50년은 절세위인들의 주체적문제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파시된 영광스러운 행로이다.

보고자는 영화예술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조선속도 창조적 불길높이 선군조선의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명적영화를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1970년대 영화예술인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하며 당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다.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처럼 부단히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진취적인 사업태도, 높은 창작적책임과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고 명적영화창작전투에 총력기해나서야 할것이다.

영화문학이 쏟아져나와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를 발표하신 50돐 기념보고회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불》, 《만평초》, 《초행길》, 《별》을 비롯한 많은 예술영화들이 창작되어 수령상장조위인이 빛나게 실현되고 우리 근대와 인민들의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50년의 영화예술이 걸어온 지난 50년은 절세위인들의 주체적문제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파시된 영광스러운 행로이다.

보고자는 영화예술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조선속도 창조적 불길높이 선군조선의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명적영화를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1970년대 영화예술인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하며 당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다.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처럼 부단히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진취적인 사업태도, 높은 창작적책임과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고 명적영화창작전투에 총력기해나서야 할것이다.

영화문학이 쏟아져나와야

영화의 대상을 마련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적사상과 열의, 우리 근대와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제의 영화문학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어린이들의 특성과 인민의 사상과 감정선에 맞고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전통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주제와 형식의 만화영화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하여야 한다.

기록영화촬영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과학성시주체의 과학영화를 더 많이 만들어 우리 인민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해나갈데 크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실력을 높여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명작목표를 안아오기 위하여 피타고 노력하며 새 시대 영화예술인들은 당의 주체적문제사상과 리론, 세계적 인 영화발전추세 등을 꾸준히 체득하여야 할것이다.

보고자는 모두다 주체의 영화예술발전에서 쌓아올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는 선수가, 기수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선교구역원림사업소에서-

천만국민의 사상과 신념을 추호도 흔들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치솟는 분노와 떨칠 수 없는 보복의지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대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남조선피괴들이 유엔에서의 반공화국《인권결의》조작과 때를 같이하여 동족을 모해하기 위한 모략책동의 도수를 갈수록 높이고있는것이다.

피괴배당은 도발적인 《북인권법》을 올레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발광하는 한편 국우보수단체들을 부추겨 우리를 대상으로 한 그 무슨 《국민통일방송》이라는것을 새로 내오려고 하면서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불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것과도 같은 피괴배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인권》, 심리모략책동은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렀다.

그 주되는 목적이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권위를 훼손시키고 우리의 사상과 신념, 천만국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신념을 허물어버려보려는데 있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고 허황한 것이없는 망상이다.

우리 천만국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사상과 신념은 원수들의 그 어떤 모략과 유혹, 제방으로써도 흔들수 없는 가장 억세고 변함없는 것이다.

우리 천만국민의 사상과 신념은 민족의 최고존엄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성장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명의 품속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귀족성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를 천백배로 굳힌 군대와 인민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

을 높이 모시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계에 떨치며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받아내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떠나 우리 민족의 긍지높고 영광넘친 오늘과 무궁변영향태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간직하고있는 것이다.

남조선피괴배당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사상과 신념의 근본바탕인 최고존엄에 대한 위협하기 그지없는 도전행위이다. 심장을 도려내겠다고 덤벼드는자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절대로 용서할수 없으며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려야 하는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 천만국민의 분노와 보복열기는 하늘끝에 닿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따르는 우리 천만국민의 사상과 신념은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끄떡없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멸의 강국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우리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렸으며 그것은 력사의 모진 풍파와 시련속에서 더욱 역세여졌다.

지난 세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자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은 그 무슨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우르르 소리를 떠들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은 원수들의 온갖 비난과 제방에도 끄떡없이 선군의 기치밑에 모진 시련과 난관을 파감히 물리치고 자기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고 있으며 오늘날은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

승리를 향해 돌진하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을 따라 자주와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에서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조속도로 창조하며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서 무한대의 위력으로 폭발하는 사상의 힘, 신념의 힘이 펼친 력사의 기적이다.

우리에게는 미국과 피괴들이 떠들어대는 가소로운 《인권》나발이 날로 승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의 힘에 걸맞은 한갓 비명으로써는 들리지 않는다.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작당하여 조작한 그 무슨 《인권결의》라는것은 조국과 인민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고한, 제 부모처자마저 버린 채 도망간 인간추락들이 돈에 환장하여 제멋대로 꾸며낸 거짓자료에 기초하여 고안해낸 남조선에서 국가와 사회의 《북인권법》, 《국민통일방송》조작 음모도 거기에 기대를 건 반공화국도 인민의 존엄과 권리가 장그러 지밧고있는 인종생자, 민주의 폐허지대에 서 달리는 필수 없는 필연이다. 좌파독재와 반인민적악정을 결연히 항거해나서는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은 피괴보수세력의 명줄을 조이고있다. 그 거세한 항거의 불길에 화염의 종말을 고할것은 인민을 등진 피괴반역파들이다.

인수들의 그 어떤 모략소동도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변함없이 걸어갈 우리 천만국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 피괴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악랄하게 감행해

온 반공화국소동과 제제도 맥을 추지 못하고있다. 이로부터 피괴들은 물에 빠진 자 지푸레기라도 잡는 격으로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요란히 떠들며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더욱 기세를 부리고있다.

그야말로 멸망에 직면한자들의 최후 발악이 아닐수 없다.

거짓말은 아무리 달려도 진리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피괴배당이 제이무리 거짓과 모략을 일삼으며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매여달려도 진리를 못잡지 못한다. 거짓말은 절대로 당해내지 못한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피괴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인권》소동에서 자멸을 계속하고있는 역적배당의 가련한 몰골을 보고있다.

압축은 팽망요소가 건지지 못하는 법이다. 피괴들이 세계최악의 인종불모지에서 제이무리 《인권》을 떠들며 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각종 인민들의 투쟁은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이것은 온갖 사회악이 만연되고 근로인민의 존엄과 권리가 장그러 지밧고있는 인종생자, 민주의 폐허지대에 서 달리는 필수 없는 필연이다. 좌파독재와 반인민적악정을 결연히 항거해나서는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은 피괴보수세력의 명줄을 조이고있다. 그 거세한 항거의 불길에 화염의 종말을 고할것은 인민을 등진 피괴반역파들이다.

인수들의 그 어떤 모략소동도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변함없이 걸어갈 우리 천만국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 피괴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악랄하게 감행해

인권재판정에 세워야 할 나라의 미국

로씨야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과 로씨야-조선반도 중만자동차행진단 성원이 11월 27일 미제와 추종세력의 반공화국《인권결의》조작을 규탄하는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번엔 날조된 반공화국《인권결의》는 미국과 추종세력의 이중기준을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에서는 주인의 절반인 상이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백색에 백인경찰이 무고한 흑인을 총으로 쏘죽이고있다

제도이첼란드동포협력회가 11월 24일 인권유린의 왕조 미국을 규탄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미국이 공화국의 《인권결의》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며는 것은 본질적으로 체제전복, 국가전복을 노린 음흉한 전략행위라고 단언하였다. 오늘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자기 나라 국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 등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인권탄압의 도수를 높이고있고 그 폭로하였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국가의 목숨줄에 위협을 가하고있고 있다. 그러나 서방나라들이 국가정권을 뒤집어엎고 인권탄압을 부추기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권》소동으로 하여 가뜰이나 침

로동의 권리, 먹고 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은 《인권결의》의 간판 밑에 전략행위를 노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공명연 관섭하면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있다.

미국은 무차별적인 전해도 청 및 전차연결로 불법무도한 정략행위를 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인권》을 구실로 자국적인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여 그 나라들이 국가정권을 뒤집어엎고 인권탄압을 부추기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권》소동으로 하여 가뜰이나 침

에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가 날로 더욱 악화되고있다. 《인권결의》는 미국의 강권과 독단, 이중기준으로 하여 날로 더욱 심각하고 복잡해지고있다. 해마다 그 무슨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고 주권국가를 반대하는 법까지 제책하는 놀음을 벌려놓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올해에도 미국은 《2013년 올해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며 《현재 미국인민을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라는 없다.》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늘어놓았다.

글은 국제사회의 인권유린의 왕조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는데 대해 준변사나란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피비린 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지울수 없다

미국은 해방후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대상으로 온갖 치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미제침략군이 지난 전쟁시기 남조선에서 감행한 민간인대학살만행은 잔인성과 야만성에 있어서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최악의 반인륜적범죄였다.

이미 미제는 전쟁전부터 남조선을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가 짓밟히고 대중적합성이 무수히 벌어지는 몸서리치는 인간장막으로 만들었다. 남조선인민들의 총의에 의해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총칼로 강제해산하고 애국적인정당, 단체들과 인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테러와 학살만행을 감행하여 온 남조선민을 시체로 뒤덮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피에 주된 살인마로서의 미제침략자들의 잔인성과 야수성은 지난 전쟁시기에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미제침략군은 인민군대의 드세한 공격에 밀려 매주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죄없는 인민들을 가지악이 학살하였다. 1950년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남조선 전지역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인민들을 무참

히 학살하였다. 대전감옥에서 1800여명에 달하는 인민들을 학살한 사건과 경상북도 포항학살, 충청남도 조치원, 전라북도 리리역, 충청북도 영동에서의 대학살만행은 폭로된 몇가지 사실에 불과하다. 이로 하여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세상에 널리 폭로된 충청북도 영동군 로근리에서의 민간인대학살만행도 바로 이 시기에 감행되었다.

1950년 7월 25일 충청북도 영동군 로근리읍에 몰려든 미제침략군은 대전에 있는 인민군대에 참가해 당한 분필로 이 일대에 주민들을 무참히 죽이려는 구실밑에 그 부근의 집들을 발파 뒤쳐 마을사람들을 모두 강변에 끌어내고는 맹사격을 퍼부어 모조리 학살하였다.

다음날인 7월 26일에는 사람들이 도로와 철길위에 집결시켜놓고 비행기를 출몰하여 무차별폭격을 가하였다. 여기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목숨을 피해 철길밑에 있는 굴다리에 모여들자 야만들은 굴다리에 기관총을 쏘치고 3일 동안이나 총탄을 퍼부어 무려 수백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죽이는 치명적인 만행을 감행

하였다.

로근리학살사건과 관련한 기록문 제 255단 사령부의 명령서를 입수하여 공개한 한 외신은 당시 만행현황에 있었던 이진 미군병사들의 증언을 보도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미군병사는 《현라병이 밀려와 《몸뚱이 썩는다. 한사람도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을 전달하였다고 말하였으며 다른 한 병사는 《나는 총을 갈겨냈다. 상판에게 머는 물어보지 않고 단지 사살만 하였다. 그야말로 대학살이었다.》고 고백하였다.

또 다른 미군병사는 《사령관의 명령은 움직이는것은 모조리 쏘죽여야 하는것이였다. 피난민도 거기에 포함되는가고 묻자 그는 《그렇다. 움직이는 모든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실로 하였다.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피난민들을 비롯한 목격자들과 체험자들은 《미국놈들은 공중을 가지고 장난치는 총에 쏘처럼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것이였다.》고 하면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로근리에서 적수공원의 무고한 인민들을 상대로 하여 비행기들을 띄우고 중무기들을 동원하여 며칠동안이나 사람잡이에 미쳐달린 천인공노할 민간

인대학살만행은 양키들이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송냥이, 극악한 살인악마들이며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러는것을 특출하게 보여주고있다.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지난 전쟁시기 미제침략군에게 무참히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유해가 계속 발굴되고있다.

하지만 미국의 저들이 저지른 용납 못할 반인륜적죄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있는가 하면 그 무슨 《우리는 《동정》이니 하는 허튼소리로 자기들의 범죄행위를 축소, 은폐하려 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수많은 민간인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그 피비린 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지울수도 없으며 지워내도 없다. 미제침략군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영혼들은 오늘도 잠 못 들었고 살인마들을 천백배로 복수해줄것을 애타게 호소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백년속적인 미제가 이 땅에서 감행한 민간인대학살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피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하여 미제에 의해 세계를 두고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한 민족의 한을 기어이 풀고야말것이다.

라영국

민족교육의 명맥을 지켜

국제회의장에 나타난 동포대표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은 민족교육사업과 동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대중적애국운동을 활발히 벌려 새 세대를 비롯한 총련의 공중적지반을 더욱 확대강화하며 광범한 동포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취적으로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동포사회의 존망과 관련된 민족교육문제에서는 그 어떤 양보나 타협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동포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민족교육기관들이야말로 민족을 높이는 가운데 얼마든지 사회내에서 진행되는 인종차별과 관련한 국제회의에서는 청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은 민족교육사업과 동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대중적애국운동을 활발히 벌려 새 세대를 비롯한 총련의 공중적지반을 더욱 확대강화하며 광범한 동포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취적으로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동포사회의 존망과 관련된 민족교육문제에서는 그 어떤 양보나 타협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동포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민족교육기관들이야말로 민족을 높이는 가운데 얼마든지 사회내에서 진행되는 인종차별과 관련한 국제회의에서는 청

총련 고베조선고급학교의 학생수학성이 지난 8월에 진행된 일본 전국고등학교종합체육대회 권투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강자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일본사람들을 놀라게 한것은 그가 권투를 시작하지 1년도 안되는 신진선수라는 사실이었다. 권투무대에서 눈부신게 활약하는 신배들의 모습

을 보면서 그는 권투로 민족의 기개를 떨쳐냈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다. 부모는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학생수학성이 아니라 권투는 체력단련만이 아니라 민족의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고 민족의 기개를 떨치기 위한 수단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적극 도와주었다. 뜻하지 않은 병으로 권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

이 《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일조관계가 정상화되면 해결될수 있다.》느니 하는 의미대소리로 얼버무리면서 저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다 그 추종을 받았다. 이밖에도 채일조선인들에 대한 추종을 고취하는 폭력행위들과 일본군공노예문제, 재일조선인교차지체와 장제사들에 대한 지원기부금등도 논의의 초점으로 되었다.

회의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주축이 되지 않고 뜻이 민족교육을 계속발전시켜야 한다는 재일조선인들의 기개에 대한 감탄의 목소리로 높아졌다. 민족교육사수행의 무대를 국제기구에 확대하여 큰 성과를 거둔 이 소식은 총련인민군과 동포들을 크게 고무하고 애국위업의 한걸음 적극 밀어주었다.

장배를 짊 메운 동포들의 열렬한 응원소리는 침과 의지를 백배로 해주었다.

지금 그는 언제나 조선의 공지와 자부심을 잊고 살수 있도록 따듯이 이끌어주고 보살펴준 총련조직의 품과 민족교육의 화원이 있어 자기의 높이가 있다고 하면서 필승의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허영민

권력의 시녀 피괴검찰을 규탄

최근 남조선에서 피괴검찰이 한 주민을 명예훼손혐의로 구속수하였다. 주민은 지난 8월 부로 11월까지 인터넷에 《세월》호참사는 현 《정부》가 계획한 대학살이고 해군잠수함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대학살을 지휘하고 집권자에게 보고했다.》, 《《세월》호 1호참사는 정보원 요원이었다.》는 내용

남조선의 《보안법》제지국민권을 비롯한 각종 성원들이 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에서 악법을 앞세운 인권유린행위가 심화되고있는데 대해 촉구하였다.

남조선공안당국이 《보안법》을 휘두르며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마구 구속하고있다.

경찰은 각계 단체들과 개인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북과 관련된 글들이 《보안법》에 저촉된다고 하면서 삭제할것을 강요하고있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

라도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인터넷에서 삭제된 게시물은 20만 6400여건에 이른다. 문제의 글들은 항일무장투쟁사와 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소식과 언론에 보도된 공화국의 립장을 담은 내용들이라고 한다.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는 단체나 개인들에 대해서는 징역에 이르기까지 형이 가해지고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현 《정부》하에서 《보안법》사건이

의 글들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피괴검찰은 그가 허위사실을 사이버공간에 투포하여 해양경찰청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떠들며 그를 구속수하였다. 이것이 지금 남조선 각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검찰당국이 지난 9월 《사이버상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막으라는 집권자의 말이 있는지

이들만에 전담수사조직을 구성하였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이 현 《정권》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 자갈을 물리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한 번 호소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주민을 구속수하였는 《검찰청을 탐용했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의 처사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현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들에 대한 보복적조치라고 폭로하였다.

본사기자

《보안법》에 의한 인권유린실태를 폭로

향적으로 매우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보안법》의 7조 《찬양, 고무죄》가 공안당국에 의해 마구 람용되고있고 인터넷에 오른 게시물들이 단지 북과 관련된 정보라는 리유 하나만으로 삭제령이 내려지고있다고 단언하였다.

게시물삭제명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그들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정국을 뒤흔드는 《국정개입의혹사건》

최근 남조선에서 《정음회 국정개입의혹사건》이라는 요란한 정치추문사건이 터졌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음회가 현 집권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배후에서 청와대의 인사문제를 좌우시키고 정치에 제멋대로 개입하고 그야말로 남조선의 정치상황을 갈고리하여 배후에 대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이 터지게 된 동기를 따져보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정음회 국정개입의혹사건》이라는 요란한 정치추문사건이 터졌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음회가 현 집권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배후에서 청와대의 인사문제를 좌우시키고 정치에 제멋대로 개입하고 그야말로 남조선의 정치상황을 갈고리하여 배후에 대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이 터지게 된 동기를 따져보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정음회 국정개입의혹사건》이라는 요란한 정치추문사건이 터졌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음회가 현 집권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배후에서 청와대의 인사문제를 좌우시키고 정치에 제멋대로 개입하고 그야말로 남조선의 정치상황을 갈고리하여 배후에 대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이 터지게 된 동기를 따져보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도 박지만씨가 미행에 대한 복수로 정음회에 대한 뒤조사를 하는 과정에 작성되었다고 한다. 이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공직기강서사관실 행정관과 그의 사건의 최종책임자 후 청와대에서 쫓겨났는데 이것은 정음회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고 언론들은 평하였다.

청와대의 더러운 내막을 폭로하는 《정음회 국정개입의혹사건》이 보도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즉시 사건을 《특대형국정추문》, 《정음회기》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사건의 최종책임이 집권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특검도 입과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해나섰다.

이렇게 되자 사건의 당사자인 정음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싸구려음모론》이라고 항변해나섰다. 《세누리당》은 《류연인》, 《정태대》에 대해 특검을 요구해나섰다. 《정태대》는 《정태대》에 대해 특검을 요구해나섰다. 《정태대》는 《정태대》에 대해 특검을 요구해나섰다.

이렇게 되자 사건의 당사자인 정음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싸구려음모론》이라고 항변해나섰다. 《세누리당》은 《류연인》, 《정태대》에 대해 특검을 요구해나섰다. 《정태대》는 《정태대》에 대해 특검을 요구해나섰다.

《정음회 국정개입의혹사건》이 보도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즉시 사건을 《특대형국정추문》, 《정음회기》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사건의 최종책임이 집권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특검도 입과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해나섰다.

이렇게 되자 사건의 당사자인 정음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싸구려음모론》이라고 항변해나섰다. 《세누리당》은 《류연인》, 《정태대》에 대해 특검을 요구해나섰다. 《정태대》는 《정태대》에 대해 특검을 요구해나섰다.

이렇게 되자 사건의 당사자인 정음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싸구려음모론》이라고 항변해나섰다. 《세누리당》은 《류연인》, 《정태대》에 대해 특검을 요구해나섰다. 《정태대》는 《정태대》에 대해 특검을 요구해나섰다.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